영광군 "설 명절 선물은 역시 '영광굴비'가 최고야"

명절 농수산물 10만원→20만원 한시적 상향으로 영광굴비 '호황'

경쟁 과일가격 상승 · 코로나19로 업계 어려움 인지 나눔캠페인도

영광군은 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을 맞아 영광굴비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 대비 4.2% 증가한 135억 원을 판매했다고 전했다.

명절을 맞이하여 택배와 홈쇼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문량이 늘었다는 호평이다. 수협과 굴비단체 등의 판매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판매액이 3,275억원으로 2019년 3,140억원 대비 135억원, 판매량은 16,976톤으로 2019년 14,625톤 대비 2,351톤 가량 증가했다.

영광굴비 판매실적이 높은 원인은 농수산물 선물가격을 10만원에서 20만원 한시적으로 상향한 영향과 경쟁상품인 과일가격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농수산물 업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취약계층 돕기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자발적인 동참에 참여하고자 지난 3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영광굴비 가공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굴비산업은 영광의 명품산업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효자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제품개발과 고품질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굴비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군·세한대·(주)무안에어로테크닉스 항공산단 발전 업무협약

김산 군수 "2023년부터 대학생 대상 교육·현장실습 통해 우수인력 확보 기대"

무안군은 항공정비(MRO) 분야의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4일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 ㈜무안에어로테크닉스(대표 노건)와 산·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항공정비(MRO)는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점검(Overhaul)를 통칭하며, 항공기는 비행전 · 후 일상점검과 기체 안전성에 대한 동체 · 날개 · 배선 등의 상세점검, 항공기를 전체적으로 분해 · 수리 · 조립하는 종합정비를 필요로 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동신대학교와의 업무협약에 이은 두 번째 산·관·학 협약으로 항공정비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군수는 "오늘 업무협약이 바탕이 되어 2023년부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고부가가치 항공정비산업을 우리 군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항공산단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 리투아니아 항공정비 업체인 FL Technics사와 입주의향(MOA)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해 11월 산단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무안=이기성기자

박우량 신안군수, 권역별 읍 · 면장회의

명절 임자대교 임시개통 등 지역 현안사항 긴급점검

신안군은 지난 3일, 명절에 임시개통하는 임자대교 관련 대처사항 등 지역 현안사항 점검을 위한 권역별 읍·면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자면을 포함한 신안 북부권(지도, 증도, 임자)과 중부권(자은, 안좌, 팔금, 암태)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에는 해당 읍면장이 참석하여 지역 최대의 현안사항인 △임자대교 개통에 따른 지역 준비사항 △명품 숲길 조성사업 △괭생이 모자반 수거처리지원 △퍼플섬 주요 도로변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관광인프라 조성 △와촌마을 공원조성 사업 등 40건에 대한 읍·면 건의사항을 보고하였고, 박우량 군수는 회의장에서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토록 지시하였다.

신안=이덕주기자

영암군, 제14기 왕인농업대학 교육생 모집

스마트팜·농산물유통 교육 등 '미래농업' 과정 운영

영암군은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제14기 왕인농업인대학 교육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14기 왕인농업인대학은 '미래농업' 과정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20회(매주 수요일), 100시간동안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스마트팜, 농산물 유통, 기후변화대응작목, 우수농가 현장견학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읍면농업인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암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시민 · 관광객 안전도시 구현

시민안전교육·안전점검·계절별 자연재난대비 등 전방위적 준비

목포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도시 구현에 힘쓰고 있다.

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각종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목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시민안전교육, 안전점검, 계절별 자연재난대비, CCTV 통합관제시스템 등 안전 관련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시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및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6월과 7월에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건축, 교통, 산업, 환경 등 7개 분야에서 35개 유형의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대진단을 통해 노후건축물, 다중이용시설, 급경사지, 건축현장 등을 점검하고 점검 내용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계절별 자연재난 대비 상황대응 계획도 수립한다. 또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풍수해보험과 시민안전보험도 실시한다.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안전 시스템도 강화한다. 지난 2017년 2월 개소해 방범, 어린이보호, 재난예방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목포시 안전통합센터 CCTV통합관제시스템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목포=박정수기자

함평군, 희망2021 나눔캠페인 최고 모금 갱신

함평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희망2021나눔캠페인'이 4억 5,882만원으로 최고 모금액을 갱신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4일 밝혔다.

함평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희망2021 나눔캠페인'을 전개했다.

당초 목표액 2억 6,151만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조기 모금되었으며, 이후에도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작년보다 1억 3천여만원 많은 금액으로 목표액 대비 175% 초과 달성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오히려 최고 모금액을 달성할만큼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금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군은 모금된 성금 중 8,000만원을 설 명절 전 어려운 이웃 384세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함평=김광춘기자